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Vol. 22, No. 3, 777-796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의 매개효과

이 시 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관계에 대한 공적자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성-관계성이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생 37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김동직과 한성열(1998)이 개발한 개별성-관계성 척도, Fenigstein, Scheier, 그리고 Buss(1975)가 개발한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 King과 Emmons(1990)의 정서표현갈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성은 남녀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직접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공적자의식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성은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대하여 공적자의식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이 나타난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대하여 직접효과만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학생 내담자들의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개별성-관계성, 공적자의식,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 교신저자 : 이시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110-500)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57 이화빌딩
Tel : 02-3668-4307, E-mail : sieunlee@knou.ac.kr

www.kci.go.kr

정서표현은 한 개인의 심리·신체적 건강 및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감정의 표현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욕구와 만나는 것으로 개인내적으로는 복잡한 정서의 과정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개인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Mongrain & Vettese, 2003).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Antoni, 1999; Harker & Keltner, 2001; Plutchik, 1994)에서는 정서표현은 심리적 건강 및 원활한 상호작용과 같은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정서표현의 억제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종우, 황의완, 전겸구, 박훈기, 1997; 류준범, 2001; Berry & Pennebaker, 1993; Traue & Pennebaker, 1993; Rivkin, 2000). 이처럼 정서를 억압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대인관계 문제 혹은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Pennebaker(1985)는 정서표현의 결핍 자체가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율 신경계의 만성적인 각성이 초래되고 그 결과 신체적 질환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표현의 욕구가 사회적 규준 또는 개인의 다른 목적들과 갈등하여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에 표현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신체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 정도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심리적 과정으로써의 편안한 비표현인지 억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양가성)'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정서표현갈등이란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억제하거나, 정서를 표현한 것을 후회하거나, 원하지 않는 정서를 표현하는 등 욕구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서표현갈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지금까지의 정서표현갈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정서표현갈등이 심리적·신체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왔다(유주현, 2000; 이주일, 민경환, 황석현, 한정원 1997; 하정, 1997; 한정원, 1997; Emmons & Colby, 1995; Katz & Campbell, 1994).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정서표현갈등이 심리적·신체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고, 정서표현갈등의 발생 경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었다. 최근 몇 편의 연구들은 정서표현갈등의 원인을 양가적 불일치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Kennedy-Moore, Watson, 그리고 Johnson(2001)은 정서표현의 양가성을 자기보호 목표와 친밀감의 목표 간의 갈등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에서의 불일치 상황에서 정서표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Leung(1998)은 중국 문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강조하므로, 개개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정서경험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의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도록 사회화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결과에 대한 근심은 표현적인 행동을 금하는 동기로써 작용하며, 그 결과 표현하고자 했던 욕구와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격성이나 분노, 또는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개인과 그가 속한 집단

www.kci.go.kr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한정원, 1997). 한국문화는 자신의 욕구에 대한 억제를 가치 있게 여기며(최상진, 정태연, 2001), 체면을 중시하고 강한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다(최상진, 1997). 이와 같은 맥락에서 Markus와 Kitayama(1991)는 정서표현갈등을 문화에 따른 자기관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서구 사회와 중국 문화 간의 정서 과정에서의 차이가 자기-해석의 체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독립적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은 내적인 속성에 대한 자율적인 표현으로서 내적 감정을 드러내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 표현을 개인의 감정에 대한 진실한 반영이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성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은 인간의 두 가지 기본 욕구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인간의 두 가지 기본 욕구를 기초로 자기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개별성과 관계성을 들 수 있다. 개별성과 관계성은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 왔다. 우선 Freud는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 충동과 타인과의 결합을 지향하는 충동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충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이후 Angyal(1951)은 자율성(autonomy)과 조화(harmony), Bakan(1966)은 주도성(agency)과 연대성(communion), Bem(1974)은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ty), Bowen(1966)은 개성화(individuality)와 통합(togetherness), Bowlby(1966)는 분리(separation)와 애착(attachment), McAdams(1980)와 McClelland(1980)는 권력 및 성취동기와 친밀 및 친화동기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다(김동직, 1999 재인용). 인간의 두 가지 기본 욕구는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왔고, 이와 같은 용어들을 김동직과 한성열(1998)은 개별성-관계성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척도를 제작하였다.

개별성과 관계성은 자기와 관련된 신념과 지식들의 표상체계로서, 자기와 세상을 지각하는 참조체제인 자기개념은 자기(self)와 타인(other)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지향적이냐, 타인지향적이냐에 따라 크게 개별성과 관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성은 분리지향적인 자기개념으로 탈맥락적인 성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감을 추구한다. 개별성은 독립, 자율, 개성추구, 자기확신, 자기주장적,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관계성은 연결지향적인 자기개념으로 자기와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친밀한 유대와 상호의존성을 추구한다. 관계성은 타인에게 관심이 많으며, 우호적이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를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조윤경, 2003).

전통적으로 산업화된 서구의 토착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성숙의 필수적인 구성요인으로 개별성, 자율성, 독립성, 성취동기 및 정체감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 분리(separation)와 개별화(individuation)를 최고의 성숙 수준으로 간주하는 남근중심의 정신분석적 발달 관점에서처럼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여성적이며 허약한 것, 심지어는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Guisinger & Blatt, 1994). 그러나 Franz와 White(1985)는 관계성과 자율성은 단일 차원의 양극단에 있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기 별개 차원에 있으면서 상호영향을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www.kci.go.kr

Blatt과 Shichman(1983)도 개별성이나 관계성 중 어느 하나가 발달하면 다른 특성이 소멸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성의 발달이 촉진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동직(1999)은 개별성과 관계성이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직교적인 2차원임을 밝힘으로써, 서로 독립적인 변인으로서 둘 다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중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청소년기 동안 그들은 개인으로서 자기감과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함께 확립하고 유지해야만 한다(Erikson, 1968; Grotevant & Cooper, 1998). 이러한 개별성과 관계성의 발달에 대해 Guisinger와 Blatt(1994)은 개별성과 관계성은 청소년 후기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발달하지만, 성인기 이후에는 두 변인이 적절한 조화와 통합이 성숙한 심리적 발달에 필수적인 중요한 과제가 되며, 또한 개별성과 관계성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일생을 두고 변증법적으로 발달해 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Hansburg(1972)는 청소년기의 과제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개별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진수경, 1995 재인용). 따라서 개별성과 관계성은 대학생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발달 과정상 대학생의 개별성과 관계성 발달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또한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에서는 성별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남녀 간에 자기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Cross와 Madson(1997), 그리고 Cross, Bacon, Morris(2000)는 성차와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변인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념을 들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서구 개인주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독립적인 자기해석 경향이 강한 반면, 같은 북미문화권에서도 특정 인종집단(예. Hispanics, Asian American, African American)이나 여성들은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갈등과 같은 정서적인 특성은 사회화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남성과 여성의 정서표현갈등의 과정 간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정서표현 및 정서표현갈등의 측면에서 성별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서표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표현적인 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정서표현을 더 억제한다는 것이다(Gross & Levenson, 1993; Gross & John, 1995). 정서표현의 강도 역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강하게 표현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공감적 표현과 타인의 정서표현을 더 잘 해석하며, 부정적 정서도 남자에 비해 더 잘 표현한다고 한다(Lennon & Einsenberg, 1987; Brody, 1999). 또한 Gross와 John(2003)은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측면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성과 관계성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은 남녀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기초로 살펴보면 높은 개별성과 높은 관계성이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유발하는지 심리적 적응을 야기하는 지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www.kci.go.kr

정서표현갈등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매개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매개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변인으로는 자의식을 들 수 있다. Fenigstein, Scheier과 Buss(1975)는 주의의 초점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자기에 두는 경향성을 자의식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기질적 성향에서의 개인차가 개인의 행동과 태도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자의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자의식 척도에는 사적자의식과 공적자의식이라는 일관된 두 가지의 자기의식 차원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적자의식은 자신의 개인적 사고와 감정에 대한 인식으로 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자기의 측면들에 주목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공적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로, 자기표현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말한다.

자의식 중 공적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표출의 방식을 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Fenigstein, 1979; Scheier, 1980). 뿐만 아니라 공적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동료집단에 대한 거부에 민감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높다. 또한 사회적 단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대사회적 행동을 검색하는데 능숙하며, 사회성과 수줍음과도 관련이 있다(Cheek & Buss, 1981). 이처럼 공적자의식은 대인관계 및 대인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으며, 우리나라 대학생의 공적자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회불안(김보경, 2003; 정승아, 2004), 자기애와 완벽주의(김은혜, 2009), 섭식장애(김정내, 2007), 신체상(고애란, 심정은, 1997; 손은정, 2007)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공적자의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공적자의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조절하려는 욕구를 증가시켜 외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내적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하게 되어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허정훈, 2000). 나아가 자신의 표현행동과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발적인 표현욕구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며 표현되지 않은 정서는 강력한 내적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Gross, 2002; Mongrain & Vettese, 2003). 즉, 지나친 관계적 욕구는 공적자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높은 공적자의식으로 인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자신의 내적 욕구를 과도하게 억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자의식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것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험하는 감정 상태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정승아, 2004).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에 의한다면 한 개인 내에 독립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 개별성-관계성이 한국적 문화의 특성 속에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공적자의식의 매개변인으로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 유발 혹은 유지되는 발생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이 매개역할을 할 것을 가정하고, 성별에 따라 그 양상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www.kci.go.kr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교직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거나 설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총 37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남학생은 145명(38.8%), 여학생은 229명(61.2%)이었다. 평균연령은 21.60세(표준편차 2.16)이며, 학년은 1학년은 59명(15.8%), 2학년은 100명(26.7%), 3학년은 117명(31.3%), 4학년은 98명(26.2%) 이었다.

측정 도구

개별성-관계성 척도

김동직과 한성열(1998)이 개발한 척도를 김동직(1999)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별성과 관계성에 대해 각각 15문항씩 총 3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별성과 관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별성은 독립과 자율 및 개성을 추구하며, 자기주장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하며,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을 의미한다. 관계성은 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과 비교적 자유롭게 정서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별성, 관계성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7, .77이었다.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

Fenigstein, Scheier, 그리고 Buss(1975)가 개발한 것을 김은정(1993)이 번안하였고 김현진(2002)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의식 척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총 23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문항의 사적 자의식, 7문항의 공적 자의식, 6문항의 사회적 불안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공적자의식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으며, 공적 자의식은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주목하는 성향으로 인상형성이나 개인의 외현적 행동방식, 예의 등으로 구성되며 자기표현 등과 관련된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적자의식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5 이었다.

정서표현갈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King과 Emmons(1990)의 정서표현갈등 질문지를 하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표현갈등 척도는 정서표현 상황에서 여러 목표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기체의 노력에 주목하고, 정서표현, 정서관리, 정서규제, 미묘한 정서표현에 대한 고민의 과정에서 유기체가 경험하는 양면성 혹은 양가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총 28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된 이 검사는 10문항의 긍정적 정

www.kci.go.kr

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18문항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표현갈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으며,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란 화, 자랑, 질투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생기는 갈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었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예비 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과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 성별에 따른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관계에 대한 공적자의식의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를 탐색하는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남녀 집단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남녀 집단 간 모형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접근법에는 모형의 적합도(fit)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적합도 지수(fit measures)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자승(χ^2), 일반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 조정부합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 NFI),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TLI),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들이 .90 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이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본다(홍세희, 2000).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예비 분석으로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측정변인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변인은 공적자의식(t=-3.80, p<.001)

표 1. 성별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변인	평균(표준편차)		t (*df*)
	남(n=145)	여 (n=229)	
개별성	3.04(.43)	3.00(.51)	.84 (372)
관계성	3.40(.49)	3.43(.48)	-.53 (372)
공적자의식	3.47(.59)	3.71(.59)	-3.80*** (372)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4.44(.75)	4.37(.83)	.78 (372)

*** p<.001

www.kci.go.kr

표 2. 성별에 따른 개별성-관계성, 공적자의식,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상관관계

구분	남자				여자			
변인	1	2	3	4	1	2	3	4
1. 개별성	1				1			
2. 관계성	.124	1			.065	1		
3. 공적자의식	-.321***	.207*	1		-.319***	-.001	1	
4.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310***	.015	.402***	1	-.387***	-.204**	.495***	1

* p<.05, ** p<.01, *** p<.001

뿐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적자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개별성은 공적자의식(r=-.321, p<.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정서표현갈등(r=-.310, p<.001)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성은 공적자의식(r=.207,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적자의식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r=.40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개별성은 공적자의식(r=-.319, p<.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정서표현갈등(r=-.387, p<.001)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성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r=-.204, p<.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적자의식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r=.495,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남녀 대학생 집단 모두 개별성은 공적자의식 및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공적자의식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대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성은 남학생 집단에서는 공적자의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대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의 매개효과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가능한 모든 경로를 포함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한 뒤, 이 중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개별성-관계성이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

www.kci.go.kr

를 나누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본모형의 검증

남학생 집단의 기본모형 검증. 남학생 집단의 기본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기본모형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포화모형(saturated model)으로 완벽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적합도 지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모형에 따른 경로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개별성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공적자의식을 매개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은 공적자의식을 매개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의 기본모형 검증. 여학생 집단의 기본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와 같은 여학생 집단의 기본모형은 남학생 집단의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다. 따라서 적합도 지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모형에 따른 경로계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개별성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공적자의식을 매개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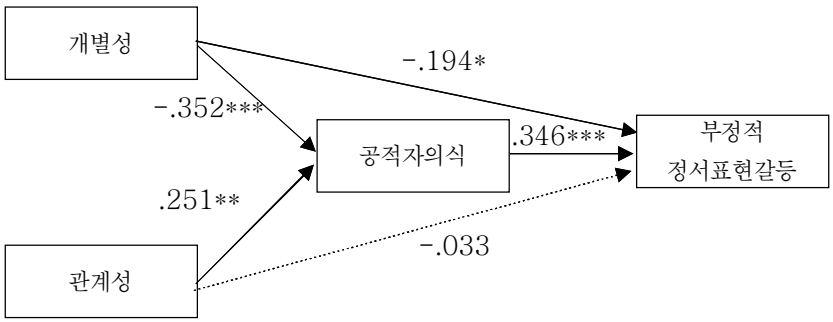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 집단의 기본 모형

표 3. 기본모형의 경로계수(남자)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t*
개별성→공적자의식	-.484	-.352	.105	-4.592***
관계성→공적자의식	.302	.251	.092	3.272**
공적자의식→부정적 정서표현갈등	.440	.346	.104	4.239***
개별성→부정적 정서표현갈등	-.340	-.194	.141	-2.415*
관계성→부정적 정서표현갈등	.050	-.033	.119	-.422

* $p<.05$, ** $p<.01$, *** $p<.00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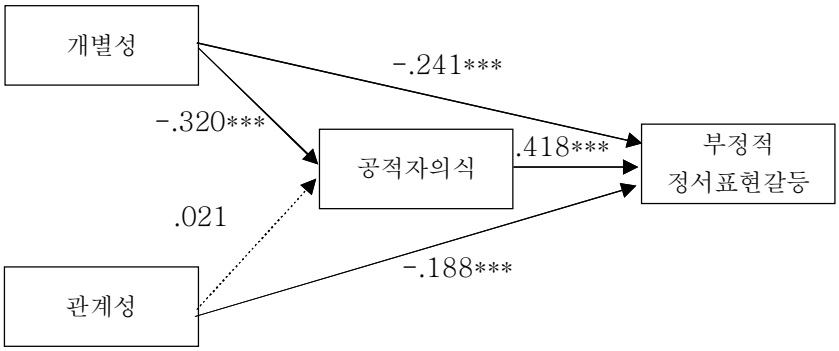

그림 2. 여학생 집단의 기본 모형

표 4. 기본모형의 경로계수(여자)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t*
개별성→공적자의식	-.368	-.320	.072	-5.092***
관계성→공적자의식	.026	.021	.077	.333
공적자의식→부정적 정서표현갈등	.586	.418	.080	7.353***
개별성→부정적 정서표현갈등	-.388	-.241	.092	-4.233***
관계성→부정적 정서표현갈등	-.324	-.188	.093	-3.481***

*** p<.001

나타났으며, 관계성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의 경로 간 다집단 분석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경로 간 다집단 차이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집단 분석은 구조방정식모델에서 한 집단의 모수치와 타 집단의 모수치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의 경로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아래의 다집단 분석에 제시된 수치들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각 경로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t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두 집단 간의 다집단 분석 결과, 관계성에서 공적자의식으로 가는 경로(t=-2.295, p<.05)와 공적자의식에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으로 가는 경로(t=-4.034,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성에서 공적자의식으로 가는 경로와 공적자의식에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경로에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서의 영향력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성에서 공적자의식으로 가는 경로, 개별성에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으로 가는 경로, 관계성에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으로 가는 경로에

www.kci.go.kr

표 5.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의 경로 간 다집단 분석

경로	개별성 → 공적자의식	관계성 → 공적자의식	공적자의식 →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개별성 →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관계성 → 부정적 정서표현갈등
개별성→공적자의식	.910				
관계성→공적자의식		-2.295*			
공적자의식→부정적 정서표현갈등			-4.034***		
개별성→부정적 정서표현갈등				-.291	
관계성→부정적 정서표현갈등					-1.811

* $p<.05$, *** $p<.001$

서는 남녀 집단 간 영향력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정모형의 검증

남학생 집단의 수정모형 검증. 좀 더 간명한 모델을 찾기 위하여 기본모형 중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재구성하였다. 남학생 집단의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고, 그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χ^2=.178, *df*=1, *p*=.673, *GFI*=.999, *AGFI*=.994, *NFI*=.997, *CFI*=1.000, *RMSEA*=.000)는 모델이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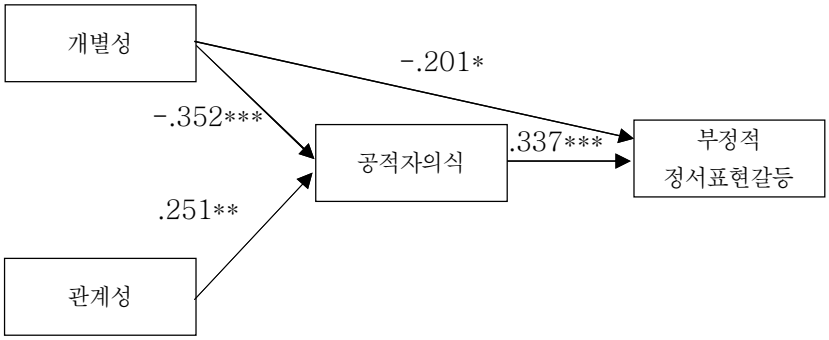

그림 3. 남학생 집단의 수정 모형

표 6.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남자)

χ^2	*df*	*p*	*GFI*	*AGFI*	*NFI*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178	1	.673	.999	.994	.997	1.091	1.000	.000(.000 - .166)

www.kci.go.kr

표 7. 수정모형의 경로계수(남자)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t*
개별성→공적자의식	-.484	-.352	.105	-4.592***
관계성→공적자의식	.302	.251	.092	3.272**
공적자의식→부정적 정서표현갈등	.428	.337	.100	4.273***
개별성→부정적 정서표현갈등	-.352	-.201	.138	-2.55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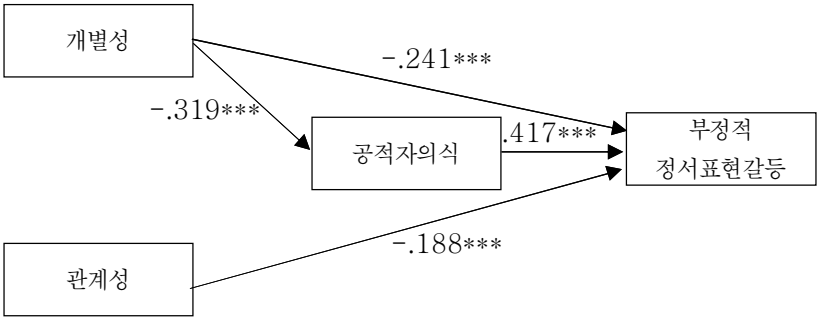

그림 4. 여학생 집단의 수정 모형

표 8.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여자)

χ^2	*df*	*p*	*GFI*	*AGFI*	*NFI*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111	1	.739	1.000	.998	.999	1.047	1.000	.000(.000 - .123)

표 9. 수정모형의 경로계수(여자)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SE*	*t*
개별성→공적자의식	-.366	-.319	.072	-5.080***
공적자의식→부정적 정서표현갈등	.586	.417	.080	7.354***
개별성→부정적 정서표현갈등	-.388	-.241	.092	-4.235***
관계성→부정적 정서표현갈등	-.324	-.188	.093	-3.482***

*** $p<.001$

www.kci.go.kr

여학생 집단의 수정모형 검증. 좀 더 간명한 모델을 찾기 위하여 기본모형 중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재구성하였다. 여학생 집단의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고, 그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는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χ^2=.111, *df*=1, *p*=.739, *GFI*=1.000, *AGFI*=.998, *NFI*=.999, *CFI*=1.000, *RMSEA*=.000)는 모델이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대한 공적자의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변인들의 성별 차이검증을 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적자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나영(2003), 김정내(2007), 김은혜(2009)의 연구 결과,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세영(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타인이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기의 외부적인 측면에 더 많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 심리의 중요 특징은 끊임없이 타인의 존재나 타인의 기대를 자각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던 Miller(1986)의 견해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적자의식 외의 다른 변인들, 즉 독립성, 관계성,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서는 남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관계적이고 남자가 더 독립적이라고 하였던 Cross와 Madson(1997)의 연구, Cross 등(2000)의 연구, 남자가 여자보다 정서표현에 대한 억제를 많이 한다는 Gross와 John(2003)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었다. 이처럼 연구 결과들 간의 상이함은 독립성과 관계성, 그리고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과 같은 변인들의 성별 차이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성, 관계성과 같은 자기개념의 해석 양식과 정서표현과 같은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성별 차이를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개별성이 높을수록 공적자의식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 낮으며, 공적자의식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개별성의 의미를 통해 공적자의식 및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과의 관계를 미루어 추론할 수 있다. 김동직(1999)은 개별성이란 독립과 자율 및 개성을 추구하며, 자기주장적이고 자기확신이 강하며,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경향이라 하였다. 따라서 개별성이 높아지면 주위의 시선 혹은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솔직한 자기표현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공적자의식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적자의식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공적자의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조절하려는 욕구를 증가시켜 외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내적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억압하게 되어 부정적인

www.kci.go.kr

정서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허정훈(2000)의 견해를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남학생들은 관계성이 높을수록 공적자의식이 높으며, 여학생들은 관계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김지경과 김명소(2003)의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일부 해석할 수 있었다. 그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어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남성은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관계가 가져다주는 실제적 이득과 상호간의 도움이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반면 여성은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공감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지각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했던 개별성-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우선 개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대한 공적자의식의 매개효과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성은 남녀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적자의식을 낮추고 이러한 공적자의식은 다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성은 공적자의식을 낮추고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감소시켜 정서표현에 있어 적응적인 기능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개별성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강조되고 있는 특성임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 정, 김은경(2006)은 그들의 연구에서 독립적 자아해석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현대 한국 문화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요구하고 개별성, 자율성, 독립성의 특징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관계성이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관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갈등간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여, 관계성은 공적자의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공적자의식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 대학생들에게 있어 관계성은 그 자체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자의식을 매개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초래하므로, 남자 대학생들의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경험에 있어서 공적자의식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여자 대학생 집단에서는 관계성이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원과 공감이 중요한 여자 대학생들에게 있어 높은 관계성은 자신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도록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표현에 대한 갈등 없이 솔직한 자기표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대

www.kci.go.kr

학생들에게 있어 관계성은 정서표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적응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되는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하여 해석되어질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밀한 의사소통과 관계에 관심이 많고 사적인 자기노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며 강화를 받는 반면, 남성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자기개방을 자제하도록 교육받은 탓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Jourard, 1971). Good 과 Mintz(1990)는 정서표현을 여성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남성은 부정적인 정서의 출구를 찾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억압된 감정들은 우울한 감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학생의 관계성 발달은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수 있으나, 남학생의 관계성 발달은 개별성 발달과는 달리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남학생들의 관계성 발달은 자칫 공적자의식을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높은 공적자의식은 한 개인의 감정표현의 욕구와 사회적 기대간의 불일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여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대학생의 발달적 시기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우선 대학생 시기에는 개별성과 관계성을 함께 발달시켜야 하는 발달 과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개별성과 관계성의 균형 잡힌 발달은 인생에서 부딪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산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도록 한다(Dolinger, Preston, O'Brien, & DiLalla, 1996). 즉, 개별성과 관계성이 조화롭게 발달된다면,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주장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므로 공적자의식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렇게 높아진 공적자의식은 개인이 경험하는 경험 상태를 증폭시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문제는 개별성과 관계성의 조화로운 발달과 관련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지닌 대학생 내담자를 상담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상담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여학생이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관계성 발달을 촉진하여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도록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남학생이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들의 관계성 발달은 자칫 타인의 평가 및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자의식 성향을 높이게 되어 부정적 감정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성이 발달한 남학생의 경우 공적자의식 성향이 높은지를 주의 깊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건강한 관계성 발달인지 관계적 발달로 인해 공적자의식 성향이 높아지지 않았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공적자의식이 높다면 지나치게 자신의 외적 행동이나 타인의 평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인해 자신의 내적 감정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www.kci.go.kr

촉진하고, 지나치게 의식되었던 타인의 시선이 과도한 자기의식에 기인하고 있음을 통찰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의 발생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나,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 심리적 안녕감 혹은 심리적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않았다. 정서표현성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양상을 보이며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문화권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내적인 정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Markus & Kitayama, 1991).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자칫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공동체에 해가 되는 무례한 행동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관계 중심의 문화권에서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은 개인의 심리·신체적 안녕과 적응을 예언하는 의미 있는 구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좀 더 확장하여 높은 부정적 정서표현갈등이 심리적 안녕감 혹은 심리적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대에 따라 그 문화가 다르고 성역할에 대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자기에 대한 해석방식과 정서인식 및 표현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하여 발달 단계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인의 자기이해와 정서표현방식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관계성 변인의 개념은 서구 문화권과 그 의미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므로 관계성이 지닌 의미가 서구 문화권과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 문화에서 관계성이 한 개인의 적응 및 부적응에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 근본적이며 공통적인 특성으로서 상호작용하는 면이 있으며, 양자 중 어느 하나만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증법적 발달을 해 나간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Guisinger & Blatt, 1994; Dolinger, Preston, O'Brien, & DiLalla, 199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지만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인의 개별성과 관계성은 어떻게 상호 관련되며 보완이 되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성숙을 위해 발달해 가는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애란, 심정은 (1997).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의식과 신체태도 및 체중조절행동의 영향 연구. 생활과학논집: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1, 15-29.

김나영 (2003). 대학생 이성 관계에서 애착과 자의식 및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ww.kci.go.kr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71-93.

김보경 (2003).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세영 (2008).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공적자의식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혜 (2009). 공적자의식, 자기제시 동기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와 완벽주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내 (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학생의 섭식태도와의 관계: 자의식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우, 황의완, 전겸구, 박훈기 (1997). 홧병과 정서적 스트레스간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170-187.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41-59.

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 정, 김은경 (2006).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437-458.

김현진 (2002).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준범 (2001). 분노의 다차원적 특성과 신체 건강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유주현 (200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주일, 민경환, 황석현, 한정원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정승아 (2004). 자기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윤경 (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91-109.

진수경 (1995). 애착, 심리적 독립성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상진 (1997). 현대 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忍苦)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하 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정원 (1997). 정서표현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정훈 (2000). 자의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ww.kci.go.kr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ntoni, M. H. (1999). Empirical studies of emotional disclosure in the face of stress: A progress report. *Advances in Mind Body Medicine, 15,* 163-166.

Berry, D. S., & Pennebaker, J. W. (1993). Nonverbal and verbal emotional expression and health.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59,* 11-19.

Blatt, S. J., & Shichman, S. (1983). Two primary configurations of psychopathology. *Pychoanalysis and Contemporary Thought, 6,* 187-254.

Brody, L. R. (1999). *Gender, emotion and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Cross, S., Bacon, P., & Morris, M.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Cross, S.,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Dolinger, S. J., Preston, L. A., O'Brien, S. P., & DiLalla, D. L. (1996).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68-1278.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6.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75-86.

Franz, C. E., & White, K. M. (1985). Individuation and attachment in personality development: Extending Erikson'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53*, 224-256.

Good, G., & Mintz, L. B. (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 risk.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17-21.

Gross, J. J. (2002).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39,* 281-291.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6-986.

Gross. J. J., & John, O. P. (1995).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three self-report factors and their correl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555-568.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Grotevant, H., & Cooper, C. (1998). Individuality

www.kci.go.kr

and connectednes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E. Skoe & A. von der Lippe (Eds.). *Persona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 cross national and life span perspective*(pp.3-37). London: Routledge.

Guisinger, S., & Blatt, S. J. (1994).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Evolution of a fundamental dialectic.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Harker, L., & Keltner, D. (2001). Expressions of positive emotion in women's college yearbook pict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sonality and life outcomes across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112-124.

Jourard, S. M.(1971). *The transparent self.*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13-524.

Kennedy-Moore, E., Watson, J. C., & Johnson, S. (2001). *Expressing emotion: Myths, Realities, and Therapeutic Strategi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Psychology, 58,* 864-877.

Lennon, R., & Einsenberg, N. (1987).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empathy and sy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195-217).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ung, J. P. (1998). Emotions and mental health in Chinese peopl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7,* 115-128.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Miller, J. B. (1986).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2nd Ed.)*. Boston, MA: Beacon Press.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Plutchik, R. (1994). *Emotions and lif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o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 82-95.

Rivkin, I. D. (2000). *The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on on adjustment to stressful ev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doctoral dissertation.

Scheier, M. F.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ve of person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14-521.

Traue, H. C., & Pennebaker, J. W. (1993). Inhibition and arousal. In H. C. Traue, & J. W. Pennebaker (Eds.), *Emotion inhibition and health*(pp.10-31). Kirkland, WA: Hogrefe and Huber.

원 고 접 수 일 : 2010. 03.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6. 03
게 재 결 정 일 : 2010. 08. 13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0, Vol. 22, No. 3, 777-796

Public Self-Consciousness as a mediator Between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Ambivalence over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Si-Eun Le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public self-consciousnes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conflicts in expressing negative emotion as well as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among them. For this study, 374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three measures were employed: (a) individuality - relatedness scale, (b) self-consciousness scale, and (c)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Individuality influenced directly the ambivalence over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directly through the public self-consciousness in both gender groups. Whereas the relatedness only influenced indirectly ambivalence over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through the public self-consciousness in the male, relatedness influenced directly ambivalence over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in female group. We also discusse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college students having problems of conflicts in expressing negative emotion.

Key words : individuality - relatedness, public self-consciousness, ambivalence over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www.kci.go.kr